

新技法에 의한 山水畫制作

教授 朴 壽

西洋은 人物畫가 特徵인데 反하여 東洋은 山水畫에 名作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人物畫에 樂作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西洋에는 東洋의 山水와 같은 世界를 推究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近來 西歐에서는 風景을 獨立된 作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印象派로 부터 인데 이는 어디 까지나 風景畫의 世界지 東洋의 山水와는 그 基本精神이 다르다.

東洋의 畫는 山水나 人物 그리고 花鳥에 이르기까지 自然의 再現에는 뜻이 없고 어디 까지나 作家의 精神世界가 無限히 살도록 空間에 依存하여 表現하는데 特徵이 있다. 그方法으로는 主題로 取擇하는 가지가 모두 作家의 表現의道具로 쓰이면서 空間에 作用하게 한다.

그러니까 山水만이 空氣가 重要한 것이 아니고 人物이나 花鳥에 있어서도 空間에 波及돼 나가는 餘韻의 空間의 生動感을 同伴하는 것이 아니면 東洋에서는 可타 하지 않는 點도 看過할수 없는 일의 하나다. 空氣를 다루는데 있어 距離感과 隨伴되는 空氣를 描寫하는 것이 아니고 無限大的 空間과의 交流를 얻음으로써 表現世界의 永遠한 生動感을 얻어야 흡족해 하는 것이 所謂 東洋藝術의 無限感 推究가 아닐까도 생각 된다.

이러한 空間에 對한 생각은 東洋 特有의 것으로 貴重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墨과 線을 表現의 方便으로 使用한 것 또한 東洋의 形式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東洋 만이 갖는 幽玄의 境地를 其間 우리는 많이 보아 온다.

以上은 東洋의 基本的 特徵이오 버려서는 않될 遺產이며 이를 바탕으로 간직 하면서 新時代에 사는 作家로서 새로운 表現의 길을 열어야 할 課題은 누구나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課題를 풀어 나가자면 于先 作家가 自

身의 練磨에 全力を 다해야 하겠고 이로써 이루어진 것들을 率直한 表現의 길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筆者は 이러한 判斷과 同時に 努力を 繼續하여 新技法을 傳統에 基盤을 두고 이뤄보려고 여러면으로 試驗을 다해 보던 중 没骨과 鈎勒을 混用해 보기로 하고 色彩의 構成의 配列도 考慮에 넣어 作畫해 보기로 했으며 특히 筆劃에 自己固有의 世界가 담겼으면 하는 意願으로 一貫해 보기도 했다.

이번에는 序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東洋의 特徵인 山水畫를 가지고 위와 같은 意趣를 強調해 보았다.

所謂 新手法의 山水畫를 意圖한 것이긴 하지만 實事新手法이건 個性 따위는 意識적으로 強調해서 成功하는例가 드물다. 體臭나 땀이스며 나오는 것과 같이 表出 돼서 格을 지녔을 때 自然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東洋의 山水에 對한 愛着은 東洋人の 精神世界의 表徵이기도 하다. 東洋人이면서도 現代人으로서의 山水畫를 갖고 싶은 것은 非但筆者만의 바램은 아니다.

意趣는 이러했지만 書面에 具現 與否는 眸眼의 第三人士들께 判斷을 바라는 수 밖에 없는 일 같다. 오직 作家의 所任을 充實히 다해 보는 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恒常自身的 일에 對하여 自信이 없음은 筆者만의 苦憊인지——갈수록 어렵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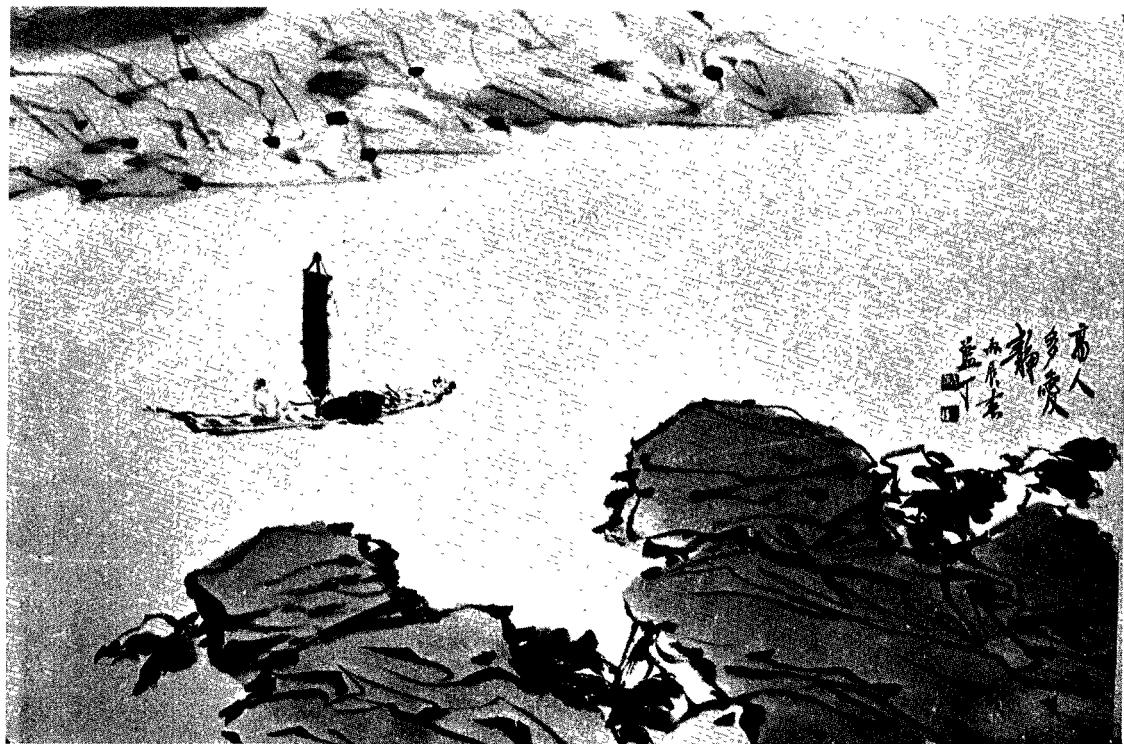
走馬西來欲神天
解家見月雨圓全夜
如人施萬少沙千里
何如施萬里人烟
一作一作一作一作
人煙一作一作一作
人煙一作一作一作



行旅 (50cm×70cm)



漁樂 (50cm×70cm)



江 (50cm×70cm)



江岸 (50cm×70cm)



山絶 (180cm×120cm)



白鷺 (50cm×70cm)



山上 (53cm×70cm)



遊鹿 (50cm×70cm)